



2011년 9월 5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시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파생상품 | 안혁 ☎ 3276-6272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투자전략
정의란 무엇인가?
- 계량분석
2분기 실적이 심상치 않다. 하지만...
- 이머징마켓 동향
긴축, 성장둔화 우려로 중화권증시 약세 지속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이노와이어 외 4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S&T대우 외 9종목
- 산업/기업분석
자동차, 나노신소재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26(금)	8/29(월)	8/30(화)	8/31(수)	9/01(목)	9/02(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778.95	1,829.50	1,843.82	1,880.11	1,880.70	1,867.75	
	등락폭	14.37	50.55	14.32	36.29	0.59	-12.95	
	등락종목	상승(상한)	448(10)	687(22)	550(14)	615(24)	369(10)	306(12)
		하락(하한)	387(2)	173(2)	284(4)	232(0)	456(8)	539(4)
	ADR	75.11	81.27	80.00	88.93	94.14	95.71	
	이격도	10 일	99.07	101.68	102.68	104.77	104.69	103.26
		20 일	94.36	97.83	99.47	102.09	102.64	102.35
	투자심리	50	60	60	60	70	70	
	거래량 (백만 주)	306	330	482	399	495	437	
	거래대금 (십억 원)	4,858	6,403	6,363	5,905	8,610	5,422	
코스닥	코스닥지수	473.31	483.27	488.49	493.44	490.22	494.47	
	등락폭	1.81	9.96	5.22	4.95	-3.22	4.25	
	등락종목	상승(상한)	544(19)	768(24)	594(23)	576(18)	434(8)	423(12)
		하락(하한)	393(4)	205(4)	356(3)	367(4)	508(3)	513(1)
	ADR	82.38	89.04	87.46	93.29	97.99	101.69	
	이격도	10 일	98.12	99.99	101.23	102.54	102.24	102.70
		20 일	96.49	99.05	100.70	102.19	101.97	103.15
	투자심리	60	60	60	60	50	60	
	거래량 (백만 주)	437	450	546	480	606	606	
	거래대금 (십억 원)	1,803	1,958	2,429	2,239	2,611	2,41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457.3	862.9	902.8	159.1	170.9	338.8	49.4	28.7	155.8	282.1
	매도	3,060.7	938.3	1,186.1	241.4	193.0	469.8	77.7	26.7	177.5	320.0
	순매수	396.6	-75.3	-283.3	-82.4	-22.1	-130.9	-28.3	2.1	-21.7	-37.9
	9 월 누계	-287.9	1,013.8	-550.7	-169.3	-71.5	-216.4	-15.3	-14.6	-63.6	-175.2
	11 년 누계	3,870.7	-4,405.2	2,376.6	1,504.0	-733.2	-4,193.7	1,698.5	-1,991.6	6,092.5	-1,842.0
	코스닥	매수	2,222.2	52.8	133.8	18.1	20.7	60.5	9.3	3.2	21.9
매도		2,248.2	72.2	80.3	8.1	12.9	42.3	5.1	1.7	10.2	33.1
순매수		-26.0	-19.4	53.5	10.0	7.8	18.2	4.3	1.5	11.6	-8.2
9 월 누계		-24.8	-28.5	61.9	15.1	0.7	24.5	10.6	0.3	10.6	-8.5
11 년 누계		-151.0	-376.7	763.5	149.9	237.0	132.2	96.9	-112.9	260.3	-235.8

정의란 무엇인가?

9월 월간 밴드	1,750-1,900pt
2011 연간 밴드	1,650-2,150pt
12MF PER	8.6배
12MF PBR	1.10배
Yield Gap	8.1%p

- ▶ 법/정치와 경제의 혼재: 독일 현재 구제금융 판결(9월 7일)/독일 의회 EFSF 승인(9월 30일)
- ▶ 9월 30일 독일 의회가 EFSF 개혁안 승인할 경우 유럽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전망
- ▶ FHFA 소송건으로 BofA 자본비율은 최대 0.8%p 감소 가능. 여전히 5%보다 높은 수준

“무엇이 미덕이고 무엇이 악덕인지 누가 판단하겠는가?”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

■ 법/정치/경제의 혼재, 9월의 주요 일정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적 판단의 차이

법과 정치적인 판단과 경제적인 판단을 내리는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바로 판단이 지향하는 목적이다. 법적인 판단의 모든 기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표현에 녹아들어 있다. 정치적 판단도,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역시 ‘정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판단의 기준은 ‘정의’와 거리가 있다. 물론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지속가능한 경영’등 정의와 연관된 기업철학이 대두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철학의 이면에는 역시 ‘이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과 정치에서 말하는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정치와 경제가 혼재된 9월

이러한 궁극적인 차이 때문에 경제적인 이슈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반대되는 경우에 우리는 보통 그 판단을 비판하고 부작용을 걱정한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을 통틀어보더라도 다가오는 9월처럼 법과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적 측면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가?

아래표는 9월의 중요한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구제금융 정책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EFSF 기능 확대에 대한 Bundestag(독일 하원)의 표결이다. 즉 법과 정치적인 판단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이는 우리 주식투자자들도 역설적이게도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임을 의미한다.

<표> 9월의 주요 일정

날짜	주요 일정
9월 7일	구제금융에 대한 독일 헌재 판결
9월 8일	ECB Meeting
9월 9일	민간은행, 그리스 국채 조정 참여 의사 표출 데드라인
9월 20~21일	FOMC Meeting
9월 29일	EFSF 개혁에 대한 Bundestag 표결
9월 30일	그리스 자금지원

자료: The Economist, 한국투자증권

■ 독일의 헌법재판소와 하원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먼저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보자.

독일 현재 판단 논점

(1) 9월 7일, 구제금융 정책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스 등에 지원된 구제금융에 대해 독일의 비판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번 독일 현재 소송은 바로 이러한 비판 여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섯명의 경제학자와 한명의 정치인으로 구성된 원고측은 독일의 구제금융 지원이 독일의 헌법과 EU 조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두가지 논점이다.

첫째, 구제금융 참여는 독일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타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리스본 조약을 어기는 것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건에 대해 9월 7일에 최종 판결을 하기로 밝혔다.

독일 의회 표결 논점

(2) 9월 29일, EFSF 개혁에 대한 Bundestag의 표결

지난 7월 유로존 정부들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을 결정하면서 EFSF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이다.

첫째, EFSF 규모를 2,500억 유로에서 4,400억 유로로 늘렸다.

둘째, EFSF가 유통시장에서도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독일의 Bundestag는 당초 예정보다 1주일 늦어진 9월 29일에 이 법안에 대한 허가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이 두가지 법적/정치적 사안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어떠한 형태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

(3) 두 법적/정치적 사안의 의미

먼저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최상위 법인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이 나면 구제금융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EFSF는 향후 유럽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구이다. 새로운 기능이 부여된 EFSF는 국채를 직매입하는 ECB의 역할을 대체하는 등 다양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EFSF 최대 주주인 독일의 최종 입장이 정리되는 Bundestag의 표결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EFSS 개혁안
국회 통과 예상

(4) 예상 시나리오와 정의

다행히 독일 헌법재판소가 구제금융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구제금융 정책을 추진할 때 국회의 승인 요건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런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구제금융에 대한 판단을 국민의 여론(국회의 표결)에 맡기겠다는 의미이다.

Bundestag에서도 EFSF의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9월 29일 EFSF 개혁안이 독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것은 유럽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이러한 독일 헌재와 의회의 예상 움직임이 법적, 정치적 판단의 핵심인 ‘정의’에 부합하는 것일까? 분명히 그리스 등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구제금융을 금지한 리스본 조약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는 상대적이라는 점에서 신의 ‘정의’와 다르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말처럼 “무엇이 미덕이고 무엇이 악덕인지 누가 판단하겠는가?” 따라서 정의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이 공리주의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리스본 조약을 어긴 것이 반드시 정의롭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공리주의에 입각한 정의

그것은 유럽 연합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상황에서의 ‘정의’이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공리주의에 입각해 지금은 새로운 ‘정의’가 보편 타당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에 입각한 독일 헌재와 국회의 판단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유럽의 금융상황 - 여전히 불안한 모습, 9월 말 이후 변화를 주목

한편 우리는 여전히 유럽의 금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9월은 국채 만기 상황이 많이 몰려있고 유럽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요구가 여전히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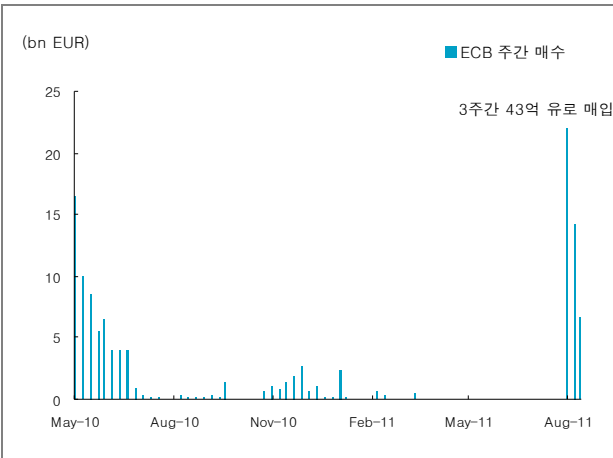
ECB 국채 매입은 제한적

(1) ECB 국채 매입 지속, 그러나 추가 매입 여지는 많지 않아 보임

이태리와 스페인 국채 금리가 6%를 넘어선 이후 시작된 ECB의 국채 직매입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주간 43억 유로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연준의 QE와 비교하면 소극적인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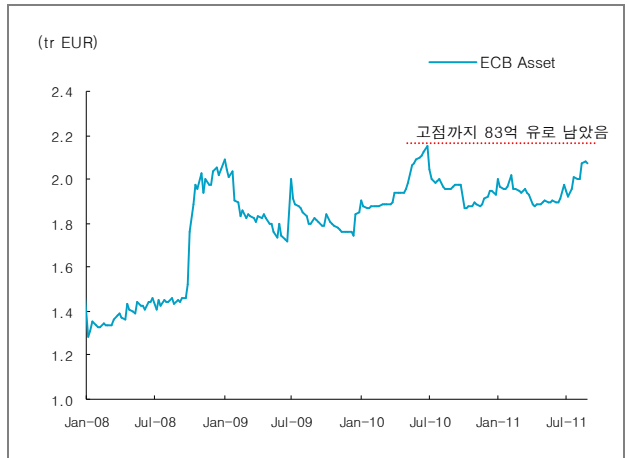
먼저 추가 매입 여지가 많지는 않다. 현재 ECB 자산의 규모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QE와 같은 정책을 명시하지 않는한 과거 자산의 고점 대비 83억 유로 정도의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ECB는 국채 매입 정책을 EFSF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정책으로 못받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9월 29일 독일 의회의 EFSF 표결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ECB는 3주간 약 40억 유로 국채 매입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2] ECB 자산으로 보면 추가 매입 여지가 많지 않음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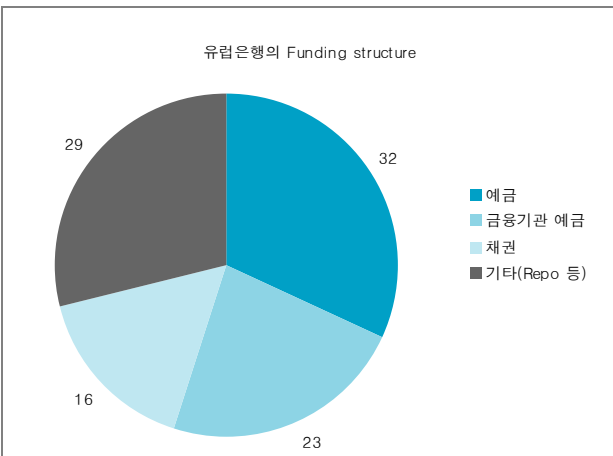
유럽 은행 자본적 논란 지속

(2) 유럽 은행에 대한 자본적정성 우려는 상존

유럽 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본확충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 만으로도 유럽 은행의 특성상 유동성 리스크가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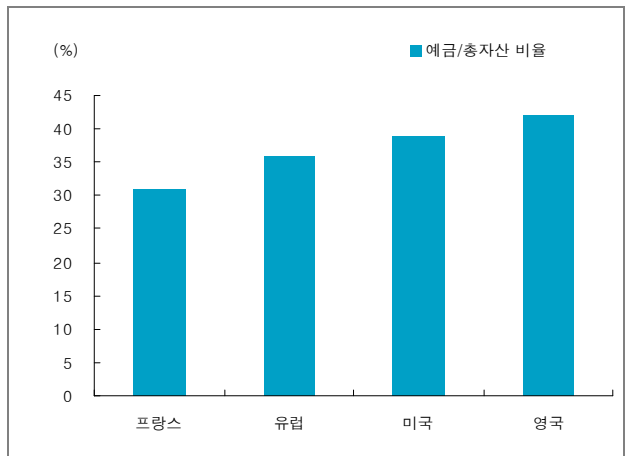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럽 은행들은 안정적인 소매금융시장인 예금보다 도매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프랑스 은행 예금의 자산대비 비율은 주요 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림 3] 유럽은행은 비예금 자금 조달 비율이 높아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그림 4] 특히 프랑스의 자금 조달 구조가 가장 취약함



자료: FT, 한국투자증권

직접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높으면 자금의 만기가 단기이고 또한 금융시장의 심리에 더욱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MMF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유럽 은행들이 달러를 조달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미국의 MMF는 최근 유럽 은행들과 거래를 상당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은행들의 미국 달러 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유럽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ECB로부터 무제한 유로화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 달러는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Socite Generale의 유리보 금리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데 비해 달러리보 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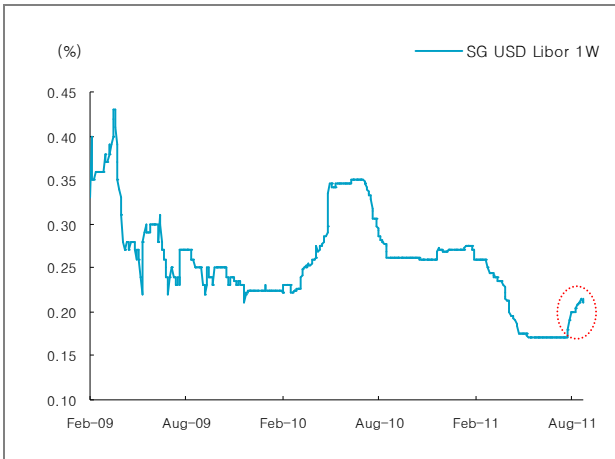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표,
9월말 이후 안정될 수 있음**

결국 유럽 은행들의 달러리보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다. 이를 포함해 그동안 우리가 중요한 변수로 언급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이태리/스페인 국채 7% 돌파 여부
- 2) 프랑스 Societe Generale 및 이태리 Unicredit의 CDS 프리미엄
- 3) 유럽 주요 은행들의 달러 조달 금리(달러리보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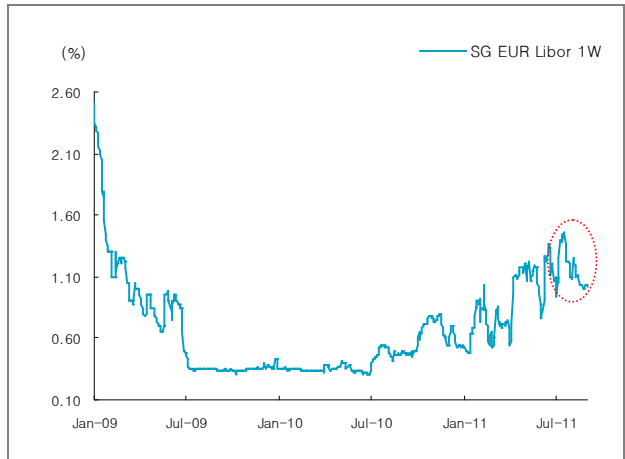
유럽 금융위기가 한고비를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하려면 상기한 변수들이 특히 안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 역시 9월 29일 EFSF에 대한 독일 의회의 표결 이후 상기한 지표들이 안정세를 나타낼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그림 5] SG - 달러리보 금리는 오르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SG - 유로리보 금리는 떨어지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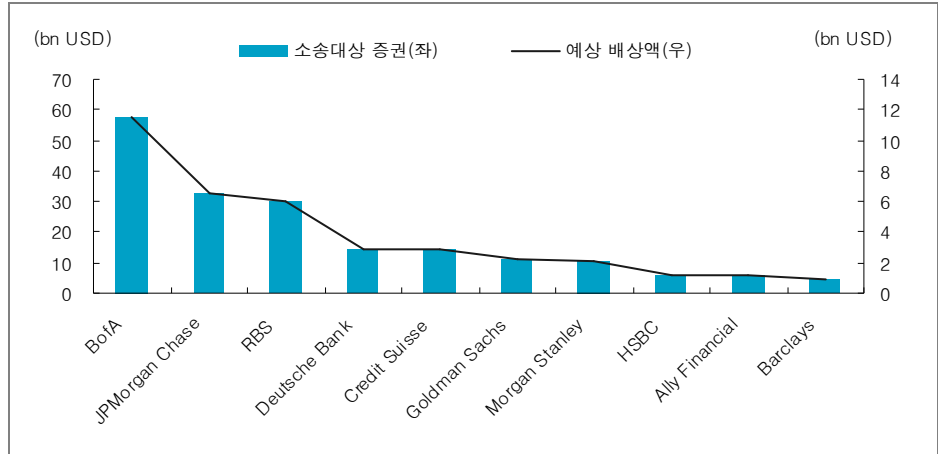
■ 미국의 금융상황 - FHFA의 모기지 소송

**FHFA의 소송,
최대 400억 달러 배상 예상**

한편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이하 FHFA)은 미국의 주요 은행에 대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을 보상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FHFA가 관리하고 있는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과 페니매가 잘못된 모기지 대출 정보로 인해 손실을 받았다는 점이 소송의 이유이다.

이번 소송에서 FHFA가 원하는 총 배상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에 UBS를 대상으로 진행된 유사한 소송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보면 전체 소송대상 증권의 20%가 배상액으로 청구됐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소송의 총 대상 증권은 약 2,000억 달러로 그렇다면 예상 배상액은 약 40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7] UBS사례 적용 시 주요 은행의 예상 배상액은 최대 4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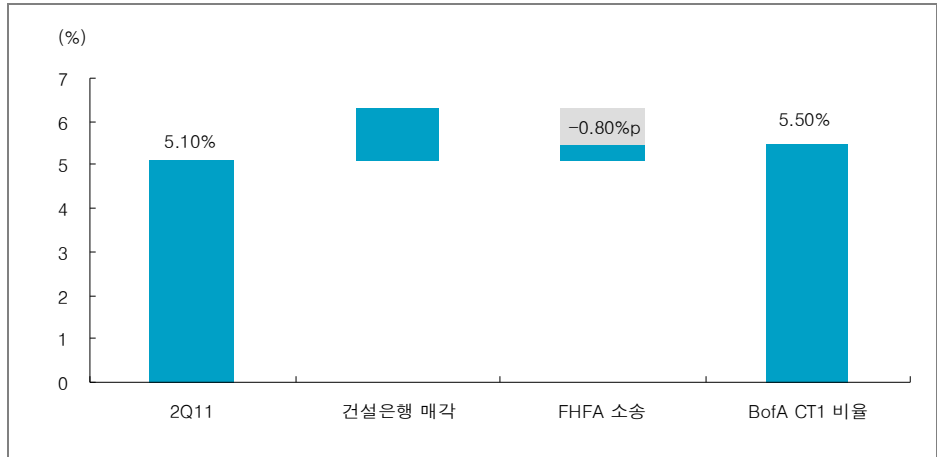
주: 예상 배상액은 지난 7월 UBS 소송에서 전체 증권의 20%를 배상액으로 청구한 점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FHFA, 한국투자증권

BofA의 영향

문제는 BofA(Bank of America)이다. BofA는 과거 미국 최대의 모기지 회사 컨트리 와이드파이낸셜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번 FHFA건과 유사한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BofA의 영향을 간단히 계산해보면 FHFA건으로 인한 자본비율 감소폭은 최대 0.8%p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번 소송의 배상 비율이 지난 7월 UBS 사례 처럼 전체 증권의 20%에 달한다는 다소 공격적인 가정하에 계산된 수치이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ofA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건설은행 지분 매각(이미 지분의 절반은 이미 매각)을 고려하면 FHFA 소송건을 다 반영하더라도 BofA의 CT1 비율은 5.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5% 이상을 상회한다.

[그림 8] UBS사례 적용 시 BofA CT1 비율은 0.8%p 감소할 수 있음



주: CT1 비율은 Basel III Core Tier 1 Capital Ratio
 자료: BofA, 한국투자증권

■ 투자전략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9월 8일 오바마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는 기존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제안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9월 20~21일 FOMC 회의에서는 장기 국채를 매수하고 단기 국채를 매도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은 만기 4년 이하의 단기 국채를 약 6,000억 달러 보유하고 있다. 장기국채를 그만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QE2의 매입 규모와 일치한다.

FOMC 회의/
 EFSF 국회 표결이 예정된
 9월말에 변곡점 가능성

9월에는 매우 중요한 일정들이 몰려 있고 특히 9월 말에 FOMC 회의와 독일 의회의 EFSF에 대한 표결이 가장 중요하다. FOMC 회의와 독일 의회의 표결 모두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지금 국면이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모멘텀이 좀더 구체적으로 등장할 때 시장의 변곡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9월 초중반은 박스권

따라서 지난 9월 월보, “변동성이 내려간다”에서 우리가 밝혔듯이 9월은 초중반은 8월보다는 변동성이 내려가지만 지수의 상단은 제한된 1,750~1,900pt에서 박스권 시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실적이 심상치 않다. 하지만...

- ▶ 은행을 제외한 주요 상장사 2분기 실적 YoY -10%, QoQ -6%
- ▶ 기업이익 컨센서스는 5월 이후 하향 추세, 당분간 하향 이어질 전망
- ▶ 하지만 2008년처럼 기업이익이 급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은행을 제외한 주요 상장사 2분기 실적 YoY -10%, QoQ -6%

12월 결산 주요 상장사(447개 회사)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로는 0.7% 감소했다. 그렇지만 기저효과(base effect)가 컸던 은행섹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전년 동기 대비 9.8%, 전 분기 대비 6.2% 감소했다. 은행은 2010년 2분기에 부동산 PF 부실로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적자를 기록했었다. 악화된 수치는 글로벌 경제 부진의 여파가 국내 기업 실적에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은행, 자동차, 철강, 소프트웨어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띄고, IT, 음식료, 유틸리티, 산업재(운송, 복합산업, 건설) 섹터는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

올해부터 K-IFRS가 도입되면서 기업실적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졌다. 우선 연결로 공시하는 기업은 공시 기일이 기존 D+45일에서 D+60일로 변경되어 대부분의 주요 기업이 8월 말에야 확정 실적을 공시했으며, 9월 둘째 주가 지나야 데이터 벤더들의 DB에 상세한 데이터가 업로드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적 분석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2011년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년도 분기 실적도 K-IFRS로 변환하여 소급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실적을 전년 동기 대비로 파악할 때, 베이스를 지난해 발표한 K-GAAP 기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와 소급 계산된 K-IFRS 기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차이가 나는 기업이 많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2010년 이익이 K-IFRS 기준으로 재작성되면 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K-IFRS 기준 비교재무제표상으로 10% 감소한다면, 우리가 기준에 알고 있는 K-GAAP 기준 이익을 전년 베이스 수치로 사용한다면 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 기업이익 컨센서스는 5월 이후 하향 추세, 당분간 하향 이어질 전망

한편 MSCI Korea 12MF EPS는 지난 6월을 고점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MF EPS 계산에 사용되는 기간가중효과를 고려하면, 2011년과 2012년 EPS 추정치는 실제로는 5월 이후 하향세로 반전되었다. 1) 일반적으로 실적 추정이 주가에 후행하고, 2)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며, 3) 8월 급락 이후 글로벌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정치 하향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2008년처럼 이익이 급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에는 2008년 위기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리워져 있다. 우리는 미국 경기는 상당기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유럽의 재정 위기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실적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던 2008년의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2008년에는 무엇보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화 평가손실이 급증(2007년 대비+10조원)한 것이 이익 급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환율이 그때처럼 급등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내기업의 이머징마켓 익스포저가 증가한 것, 비즈니스 사이클이 장기 호황의 정점에 있던 2007년 말보다는 양호하다는 것도 기업이익과 주가의 하단을 어느 선에서 지지하는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9월 2일 주가 기준으로 2012년 실적 예상 PER은 8.4배다. 2012년 실적 예상치가 현재보다10% 감소하더라도 연말의 12MF PER은 10배 이하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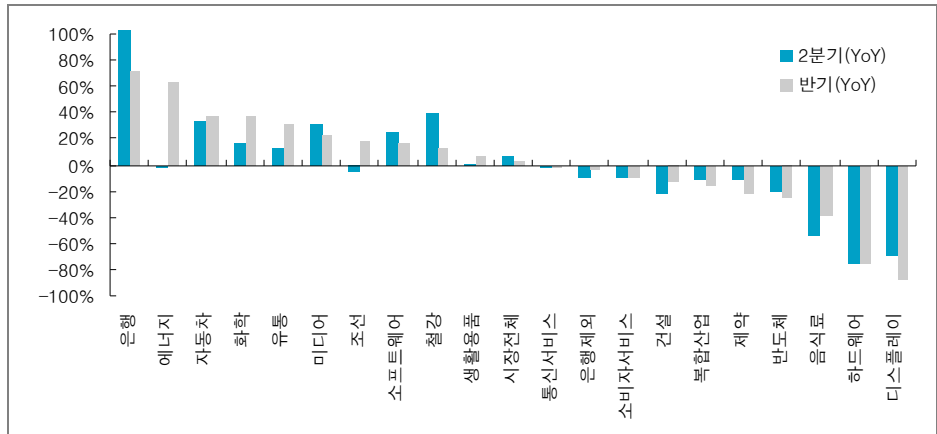
<표 1> 2분기 기업 실적: 총량

(단위: 십억 원)

시장전체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지배주주이익
1Q 10	329,462	33,476	35,052	27,879	24,214
2Q 10	350,107	33,205	25,797	25,761	21,458
1H 10	679,568	66,681	60,848	53,641	45,672
1Q 11	391,980	34,217	36,087	27,581	23,034
2Q 11	409,505	33,878	30,289	27,394	23,712
1H 11	801,485	68,095	66,375	54,975	46,746
2분기 QoQ	4.5%	-1.0%	-16.1%	-0.7%	2.9%
2분기 YoY	17.0%	2.0%	17.4%	6.3%	10.5%
반기 YoY	17.9%	2.1%	9.1%	2.5%	2.4%
은행 제외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지배주주이익
1Q 10	321,404	28,375	29,889	23,775	20,334
2Q 10	346,270	32,327	24,911	25,013	20,828
1H 10	667,674	60,702	54,800	48,788	41,162
1Q 11	384,440	29,695	31,457	24,070	19,737
2Q 11	399,710	27,397	23,916	22,573	19,013
1H 11	784,150	57,092	55,373	46,642	38,750
2분기 QoQ	4.0%	-7.7%	-24.0%	-6.2%	-3.7%
2분기 YoY	15.4%	-15.3%	-4.0%	-9.8%	-8.7%
반기 YoY	17.4%	-5.9%	1.0%	-4.4%	-5.9%

주: 12월 결산 주요 상장회사(447개 회사) 기준
 자료: Fn데이터가이드, 한국투자증권

[그림 1] 2분기 기업실적 분석: 업종별



주: 순이익의 기준, 유틸리티는 적자 지속, 운송은 적자 전환
 자료: Fn데이터가이드, 한국투자증권

<표 2> 2분기 기업실적 분석

(단위: 십억 원)

업종	2Q 11				1H 11				
	기업 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지배주주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지배주주의	매출액	
에너지	21	33,710	1,211	967	920	66,630	3,751	3,014	2,903
화학	33	23,988	2,719	2,169	1,776	47,616	6,000	4,708	3,804
철강	29	33,294	3,103	2,378	2,103	64,275	5,759	4,492	3,899
건설	20	21,376	1,278	833	777	39,753	2,352	1,596	1,493
복합산업	6	43,623	2,213	1,783	1,133	86,168	5,278	3,777	2,118
기계	13	2,832	297	213	166	5,699	591	410	309
무역	6	12,348	308	333	296	23,746	530	492	424
조선	11	26,418	2,189	1,535	1,417	51,701	5,103	3,755	3,465
상업서비스	6	1,544	244	178	163	2,833	327	266	238
운송	12	13,180	-83	-282	-298	25,529	147	-214	-293
자동차	27	46,202	4,424	4,760	4,396	88,694	8,341	8,858	8,193
내구소비재 및 의류	15	2,560	319	240	102	4,935	609	454	154
소비자서비스	15	1,881	267	208	95	3,760	568	404	197
미디어	9	938	130	101	38	1,705	219	173	60
유통	9	6,557	694	520	366	13,264	1,403	1,220	787
음식료	31	12,410	1,185	854	546	24,406	2,290	1,662	1,035
생활용품	4	2,357	310	227	172	4,743	735	546	411
계약	29	2,222	242	170	23	4,347	501	386	54
소프트웨어	23	2,080	428	408	292	3,997	821	839	637
하드웨어	31	20,356	430	328	229	39,283	827	587	364
반도체	26	43,772	4,378	4,094	3,928	84,908	7,793	7,256	6,916
디스플레이	23	7,622	36	217	184	14,563	-99	174	79
통신서비스	3	11,657	1,152	921	921	22,971	2,583	2,071	2,071
유틸리티	8	16,684	-625	-1,030	-1,099	39,276	-267	-1,002	-1,183
기타	29	9,300	426	334	257	17,730	693	509	405
은행	7	9,795	6,481	4,822	4,698	17,335	11,003	8,333	7,995
기타금융	1	799	123	111	111	1,617	236	213	213
시장전체	447	409,505	33,878	27,394	23,712	801,485	68,095	54,975	46,746
은행제외	440	399,710	27,397	22,573	19,013	784,150	57,092	46,642	38,750

자료: Fn데이터가이드, 한국투자증권

* 상기 보고서는 2011년 9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긴축, 성장둔화 우려로 중화권증시 약세 지속

- ▶ 상반기 재고증가로 경기둔화 우려 커져. 8월 물가지표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할 것
- ▶ A주 바닥권 도달인식 강화로 관망심리 뚜렷. 은행, 부동산, 철강 등 업종 약세 주도
- ▶ 미국 경제지표 부진 및 차익실현 매물출회로 H지수 2% 이상 급락

상해증시 전일 약세 이어
1.1% 하락. 대부분 업종
약세 마감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1.1% 하락하며 전일에 이어 약세를 보였다. 약보합세로 출발한 지수는 곧바로 2,550선 아래로 떨어졌고 장 마감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 상장기업의 상반기 재고증가가 7월 PMI 하락과 맞물리며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8월 물가 상승률이 7월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식품가격 반등으로 인플레이션 부담이 여전했다. 상해종합지수가 2,000p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해외투자기관의 시나리오도 악재였다. 다만 바닥권 도달인식이 확산되며 관망심리가 뚜렷한 모습이었다. 중소형 은행의 기준을 인하 전망이 루머로 확인돼 은행업종이 크게 하락했고 부동산 업종도 동반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철강, 농업, 소비재, 석탄, 통신, 유틸리티, 항공 등의 주가 하락 폭도 컸다. 한편 낙폭 과대 인식으로 헬스케어, 철도운송 등으로는 저가매수세가 유입돼 상승 마감했다.

■ 홍콩 시장

H지수는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며 2.4% 급락했다. 약보합 출발한 지수는 오전 장에 하락 폭이 더 커졌고 오후 장에도 반등세로 전환하지 못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9%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전주 초, 중반의 지수 상승분을 실현하려는 차익매물이 출회됐다. 중국성장 둔화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압력도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모든 업종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전력, 부동산, 은행, 석탄 등의 하락 폭이 컸다.

H지수 이틀 연속 하락
전력, 부동산, 은행 약세
두드러져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9/2(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528.3	-1.1	-3.2	-1.5	-10.0
홍콩 H	10,664.5	-2.4	3.5	-2.5	-16.0
인도 SENSEX	16,745.9	0.4	2.8	0.4	-18.3
러시아 RTS	1,675.7	-1.7	5.0	-1.6	-5.3
브라질 보베스파	58,118.2	2.9	9.8	2.9	-16.1
베트남 VN	435.3	2.5	8.4	2.5	-10.2
MSCI 이머징마켓	1,038.0	0.5	6.4	0.5	-9.8

주: 2일 오후 6시 기준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종목/테마	내 용
한국항공우주(047810) ▶31,950원(+11.32%)	전투기 양산계약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올해 말 방위사업청과 1조8,000억원 규모 총 60대의 국산 전투기 FA-50 양산계약 체결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민항기와 해외 훈련기 등 하반기 수주 모멘텀 및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높은 실적 개선 전망
안철수연구소(053800) ▶39,800원(상한가)	안철수 원장 서울시장 출마설에 상한가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이 제기되며 상한가. 안 교수는 동사의 최대 주주로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주식 37.1%를 보유하고 있음 -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잇따른 발생으로 보안 시스템 강화에 따른 수혜 및 정부의 소프트웨어 발전대책 마련 또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우진(105840) ▶16,750원(+11.67%)	안전강화 원전정책 수혜 기대감에 초강세 - 한국수력원자력이 2020년까지 6조원을 투자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강화하고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초강세 - 원전 1기당 연간 약 30억원의 계측기 교체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번 정책에 따라 계측기의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적용범위가 확대돼 동사의 매출 증가 전망
게임주	성장세 지속 전망에 강세 -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부각되는 가운데 신작 출시 기대감 및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수혜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 SK컴즈(066270), 웹젠(069080, 이상 상한가), 컴투스(078340, +13.49%), CJ E&M(130960, +10.21%), 게임빌(063080, +6.53%), JCE(067000, +5.85%) 등 강세
강관업체주	남·북·러 가스관 연결 기대감에 강세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남·북·러 가스관 연결 추진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초강세 - 하이스틸(071090), 동양철관(008970), 대호피앤씨(021040), 미주재강(002670), 금강공업(014280, 이상 상한가), 비앤비성원(015200, +7.85%) 등 강세
철도주	유라시아철도 연결 기대감에 강세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유라시아철도 구상에 대해 재언급 함으로써 기대감이 고조되며 관련주 강세 - 케이비물산(008540, 상한가), 세명전기(017510, +8.84%), 광명전기(017040, +5.58%) 대아티아이(045390, +5.22%), 대호에이엘(069460, +4.31%), 삼현철강(017480, +3.92%)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이노와이어 외 4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이노와이어 (073490)	19,250 (-1.0)	19,450 (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TE관련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우선적인 수혜 예상. 또한 신규통신망 투자가 진행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매출확보 가능 - 단말기 계측장비 생산을 통해 휴대폰업체로 고객을 확대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 - 통신사의 LTE 투자가 2012~2013년에 피크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 추세 지속 예상
한세실업 (105630)	7,200 (+1.8)	7,070 (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면가격 안정과 평가 인상으로 하반기 수익 개선 전망 - 니트류에 이어 우븐(Woven: 남녀 정장, 셔츠 등에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본 원단) 사업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2011년 1분기 기준 1,206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인텍플러스 (064290)	5,120 (+5.3)	4,860 (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검사장비 발주 감소로 1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2분기에는 매출액 93억원(+21.8% YoY) 및 영업이익 21억원(+44.5% YoY)으로 호실적을 기록 - 반도체 및 태양광 부문이 지난해 대비 각각 2배 가량 성장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13%, 16% 증가한 380억 및 87억원 예상 - 3분기부터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금년 예상이익 기준 PER이 6배 수준으로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SK텔레콤 (017670)	151,000 (+7.1)	141,000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가입자 수 증가 및 마케팅 비용 통제 등으로 양호한 실적 개선세 지속 - 플랫폼 사업 분사는 플랫폼 사업의 정부규제 회피 및 신규 수익모델 창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 하이닉스 인수와 관련한 리스크는 주가에 일정부분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 및 배당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인터로조 (119610)	9,490 (+2.6)	9,250 (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매출액 59억원(YoY +21.4%, QoQ +9.5%), 영업이익 21억원(YoY +14.7%, QoQ +35.5%)으로 추정(영업이익률은 35%로 전분기대비 6%p 상승) - 기존 매출처인 유럽권역에서의 매출 호조와 더불어 중국 호리엔사 매출 9억원(추정) 발생으로 고객사 다변화 효과 기대 - 3분기 신제품 원데이씨클렌즈 출시 및 마케팅 강화로 현재 미미한 (2% 내외)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텔레콤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인텍플러스, SK텔레콤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인텍플러스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S&T대우 외 9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1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S&T대우 (064960)	35,300 (+4.1)	33,900 (8/24)	776.5	60.1	68.6	4,693	7.5
- 한국GM 및 GM Global의 판매 회복 및 현대차/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증가를 강세 지속, 방산사업 매출 본격화에 따른 하반기 성장 모멘텀에 주목							
고려아연 (010130)	440,000 (+7.8)	408,000 (8/22)	5,054.9	912.0	819.7	46,378	9.5
- 신규 설비 가동 본격화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웅진생크빅 (095720)	17,250 (-9.4)	19,050 (8/22)	838.1	74.6	54.0	2,115	8.2
- 하반기 학습지, 영어학원 사업의 성장 및 신규 사업 효과로 실적 개선 모멘텀 부각될 전망 - 웅진패스원(지분율 62%) 상장 및 배당주 매력(배당수익률 6.4%)도 긍정적							
에스원 (012750)	57,400 (+5.3)	54,500 (8/19)	942.4	146.6	123.3	3,658	15.7
- 시스템 가입자 증가 및 ARPU 개선, 자회사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 - 중국법인 설립은 내수 중심의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성장이 가능한 중국 보안 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							
CJ E&M (130960)	52,900 (+6.9)	49,500 (8/19)	1,119.1	135.5	179.0	4,720	11.2
- 자체 제작 확대에 따른 방송 부문의 경쟁력 강화는 광고 및 수신료수익, 해외 수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							
NHN (035420)	210,500 (+12.9)	186,500 (8/19)	2,105.2	659.7	500.9	11,245	18.7
- 검색광고 매출 성장 및 클릭수 증가, 모바일 검색 광고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LG패션 (093050)	50,100 (+8.4)	46,200 (8/8)	1,312.7	157.3	125.1	4,279	11.7
- 매장 확대 및 신규 브랜드 도입을 통한 외형 확대 및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 - 자체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중국시장 공략 본격화에 주목할 필요							
농심 (004370)	237,500 (-3.1)	245,000 (8/5)	2,008.4	116.6	137.0	23,686	10.0
- 원가 부담은 상존하나 프리미엄 제품 출시 및 스낵 가격 인상 효과 등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KT&G (033780)	68,800 (+2.8)	66,900 (8/5)	3,662.3	1,193.6	938.0	7,415	9.3
- 담배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신규 사업 가시화, 배당수익률 등이 부각되며 투자매력 상승할 전망							
영원무역홀딩스 (009970)	43,300 (+6.5)	40,650 (7/12)	96.5	87.1	84.7	7,847	5.5
- 자회사인 골드원코리아 가치 및 영원무역의 실적 호조,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고려아연, NHN, KT&G를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NHN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경기침체 영향 미미 확인

■ 8월에도 견고한 성장세 지속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대차(005380, TP 320,000원)와 기아차(000270, TP 105,000원)는 지속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의 8월 총 판매대수는 내수판매 강세와 견고한 해외공장 판매(178,693, +9.8% YoY)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307,320대를 기록했다. 현대차 내수판매는 51,322대(+4% YoY), 수출은 77,305대(-3.9% YoY)이다. 기아는 해외판매 강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27% 성장한 191,232대를 기록했고, 21개월 연속 현대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아의 내수판매는 전년동월대비 5.2% 감소했지만, 해외판매(수출 76,363대(+33.9% YoY), 해외공장 판매 78,258(+42.6% YoY))는 38.2%나 증가했다.

■ 현대, 기아 미국발 경기침체 영향 미미

일본업체들의 생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기아는 디자인, 성능, 연비, 기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견고한 미국 성장세를 지속했다. 양사의 8월 미국시장 점유율은 7월 9.9%에서 9.3%로 하락했지만, 이는 전년동월 8.6%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8월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한 99,693대이다. 산업수요는 7.5% 증가한 1,072,379대를 기록했지만, 현대는 9.1% 증가한 58,505대와 기아는 26.9% 증가한 41,188대를 판매했다. 이로써 현대의 점유율은 전년동월 5.4%에서 5.5%로 상승했고, 기아의 점유율은 3.3%에서 3.8%로 급등했다. 판매 강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우수한 품질의 모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공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업체들의 점유율은 3월 40%에서 4월 35.5%, 5월 30.4% 그리고 6월에 30%로 하락세를 보인 후 7월 32.9%, 8월 33.3%(vs 10년 8월 38.3%)로 소폭 회복했다.

*상기 보고서는 2011년 9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나노신소재(121600)

매수(유지)
목표가: 21,000원(하향)
종가(9/1): 15,300원

솔린드라 파산 신청, 부정적이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 솔린드라 파산 신청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 급락

전일 동사의 주가는 솔린드라 파산보호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한가를 기록했다. 솔린드라는 미국의 CIGS 박막형 태양전지 업체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캐피탈 및 미국 정부로부터 15억 달러 자금을 유치 받았던 업체이다. 글로벌 태양광시장의 부진과 결정질 태양전지 가격의 급락이 박막형 태양전지 업계에도 악재로 작용했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았던 솔린드라가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할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의 솔린드라향 매출비중은 2010년 40%, 2011년 상반기 28%이고, 매출채권은 36억원 규모이다.

■ 하반기 태양광용 타겟 매출 전망 하향 조정

3분기는 태양광용 타겟 매출의 성수기인데, 솔린드라의 영업 중단으로 매출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3분기 들어서면서 솔린드라향 납품이 연기되었고, 태양광용 타겟 분기 매출은 10억원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당분간 솔린드라를 대체할 매출처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태양광용 타겟 매출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감안하여 태양광용 타겟의 2011년, 2012년 매출 전망치를 85억원, 6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기존 전망치대비 각각 49%, 70% 낮은 수치이다.

■ 3분기 실적 둔화도 불가피

태양광용 매출 하향 조정으로 3분기 실적 둔화도 불가피하다. 3분기 매출액은 82억원으로 기존 전망치(130억원) 대비 37% 하향 조정했다. 영업이익은 관련 매출채권 대손상각 여부에 따라 변동이 큰데, 보수적 관점에서 전액 상각을 가정하여 19억원의 영업이익자가 예상된다. 태양광용 타겟 매출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했지만 Cabot Microelectronics의 국내 진출에 따른 CMP 슬러리 납품 증가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 투자의견 매수 유지하나 목표주가는 21,000원으로 16% 하향

우리는 이전 자료에서 디스플레이용 타겟이 향후 동사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주장해왔다. 주요 매출처의 영업 정지로 실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핵심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동사의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지만 금번 솔린드라 사태에 따른 실적 둔화로 목표주가를 21,000원으로 16% 하향했다. 목표주가는 2012년 예상 EPS(1,672원)에 당사 유니버스내 전자재료업체들의 2012년 평균 PER 12.5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설령 디스플레이용 로타리 타겟 진입이 늦어지더라도 330억원의 매출과 100억원의 영업이익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하락은 과매도 권역이라는 판단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09A	20	5	5	5	900	72.9	7	NM	NM	NM	31.1
2010A	28	9	8	7	1,311	45.7	10	NM	NM	NM	31.7
2011F	34	4	5	4	627	(52.2)	7	24.4	15.6	1.9	10.2
2012F	51	15	15	12	1,672	166.8	18	9.2	5.4	1.6	18.4
2013F	68	19	20	16	2,250	34.6	23	6.8	3.8	1.3	20.4

*상기 보고서는 2011년 9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유주형 (jhyoo@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26(금)	8/29(월)	8/30(화)	8/31(수)	9/01(목)	9/02(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778.95	1,829.50	1,843.82	1,880.11	1,880.70	1,867.75	
	등락폭	14.37	50.55	14.32	36.29	0.59	-12.95	
	등락종목	상승(상한)	448(10)	687(22)	550(14)	615(24)	369(10)	306(12)
		하락(하한)	387(2)	173(2)	284(4)	232(0)	456(8)	539(4)
	ADR	75.11	81.27	80.00	88.93	94.14	95.71	
	이격도	10 일	99.07	101.68	102.68	104.77	104.69	103.26
		20 일	94.36	97.83	99.47	102.09	102.64	102.35
	투자심리	50	60	60	60	70	70	
	거래량 (백만 주)	306	330	482	399	495	437	
	거래대금 (십억 원)	4,858	6,403	6,363	5,905	8,610	5,422	
코스닥	코스닥지수	473.31	483.27	488.49	493.44	490.22	494.47	
	등락폭	1.81	9.96	5.22	4.95	-3.22	4.25	
	등락종목	상승(상한)	544(19)	768(24)	594(23)	576(18)	434(8)	423(12)
		하락(하한)	393(4)	205(4)	356(3)	367(4)	508(3)	513(1)
	ADR	82.38	89.04	87.46	93.29	97.99	101.69	
	이격도	10 일	98.12	99.99	101.23	102.54	102.24	102.70
		20 일	96.49	99.05	100.70	102.19	101.97	103.15
	투자심리	60	60	60	60	50	60	
	거래량 (백만 주)	437	450	546	480	606	606	
	거래대금 (십억 원)	1,803	1,958	2,429	2,239	2,611	2,41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457.3	862.9	902.8	159.1	170.9	338.8	49.4	28.7	155.8	282.1
	매도	3,060.7	938.3	1,186.1	241.4	193.0	469.8	77.7	26.7	177.5	320.0
	순매수	396.6	-75.3	-283.3	-82.4	-22.1	-130.9	-28.3	2.1	-21.7	-37.9
	9월 누계	-287.9	1,013.8	-550.7	-169.3	-71.5	-216.4	-15.3	-14.6	-63.6	-175.2
	11년 누계	3,870.7	-4,405.2	2,376.6	1,504.0	-733.2	-4,193.7	1,698.5	-1,991.6	6,092.5	-1,842.0
코스닥	매수	2,222.2	52.8	133.8	18.1	20.7	60.5	9.3	3.2	21.9	24.9
	매도	2,248.2	72.2	80.3	8.1	12.9	42.3	5.1	1.7	10.2	33.1
	순매수	-26.0	-19.4	53.5	10.0	7.8	18.2	4.3	1.5	11.6	-8.2
	9월 누계	-24.8	-28.5	61.9	15.1	0.7	24.5	10.6	0.3	10.6	-8.5
	11년 누계	-151.0	-376.7	763.5	149.9	237.0	132.2	96.9	-112.9	260.3	-235.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음식료품	13,496	운수장비	-49,778
유통업	11,863	금융업	-29,840
서비스업	6,537	건설업	-22,804
호남석유	16,570	기아차	-31,631
NHN	15,661	현대건설	-24,709
CJ제일제당	10,551	우리금융	-15,439
LS	5,761	한화케미칼	-14,988
삼성물산	5,276	LG화학	-13,630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3,763	운수참고	-1,833
화학	1,816	음식료품	-1,322
유통업	1,497	통신업	-1,302
LG	2,037	삼성전자	-1,548
현대차	1,560	대상	-1,511
삼성물산	1,415	한진해운	-1,469
강원랜드	1,161	SK텔레콤	-1,404
신한지주	1,018	두산인프라코어	-1,221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29,082	운수장비	-107,526
유통업	18,937	화학	-72,514
보험	14,670	금융업	-49,990
NHN	29,148	기아차	-43,899
호남석유	14,131	LG화학	-35,640
CJ제일제당	11,972	현대건설	-32,246
락앤락	10,851	우리금융	-29,476
LS	10,475	한화케미칼	-24,510
삼성생명	9,867	대우조선해양	-23,152
두산인프라코어	9,315	현대중공업	-20,433
GS건설	8,775	SK이노베이션	-17,141
동양기전	7,194	삼성중공업	-15,929
삼성전자	6,984	S-Oil	-14,796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15,834	운수장비	-48,464
보험	11,000	건설업	-27,039
전기,전자	9,924	서비스업	-23,106
삼성전자	16,635	현대모비스	-25,624
OCI	13,831	GS건설	-21,110
삼성생명	11,974	한국타이어	-20,610
금호석유	10,686	NHN	-19,000
POSCO	9,452	하이닉스	-15,326
고려이연	6,774	LG화학	-12,442
현대백화점	5,821	현대중공업	-12,043
LG전자	5,242	삼성물산	-11,929
롯데쇼핑	5,091	신한지주	-8,029
SK C&C	4,281	GKL	-8,019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13,112	반도체	-3,600
전문기술	9,187	사업지원	-2,169
계약	2,371	소프트웨어	-2,076
CJ E&M	10,651	이스트소프트	-2,706
다음	7,702	OCI머티리얼즈	-2,559
SK컴즈	5,410	네오위즈	-1,492
JCE	3,167	안철수연구소	-1,417
셀트리온	1,673	모두투어	-1,121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도	
전문기술	3,888	사업지원		-815	
기계,장비	1,974	계약		-390	
인터넷	1,119	통신서비스		-356	
CJ E&M	3,206	셀트리온		-894	
에스에프에이	1,915	JCE		-797	
네오위즈	809	모두투어		-779	
SK컴즈	808	한글과컴퓨터		-504	
에스엠	774	OCI머티리얼즈		-486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773	인터넷	-497
계약	380	도매	-185
전문기술	351	비금속	-3
CJ E&M	466	다음	-314
셀트리온	380	후너스	-279
AP시스템	307	SK컴즈	-183
덕산하이메탈	302	JCE	-166
컴투스	169	네오위즈	-64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3,876	계약	-2,302
디지털컨텐츠	2,741	반도체	-2,143
전문기술	2,581	금속	-637
다음	4,402	메디포스트	-2,497
CJ E&M	2,026	OCI머티리얼즈	-2,428
네오위즈게임즈	1,475	서울반도체	-850
JCE	1,071	파트론	-527
에스엠	694	SK컴즈	-526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20,300	소프트웨어	-2,651
인터넷	19,020	반도체	-1,496
디지털컨텐츠	8,300	IT부품	-1,034
CJ E&M	20,529	OCI머티리얼즈	-5,032
다음	13,074	메디포스트	-3,121
SK컴즈	5,879	이스트소프트	-2,706
JCE	4,905	한글과컴퓨터	-1,855
셀트리온	2,192	모두투어	-1,795
CJ오쇼핑	2,013	서울반도체	-1,567
AP시스템	1,847	안철수연구소	-1,450
컴투스	1,843	차바이오앤	-881
에스에프에이	1,817	젬백스	-811
네오위즈게임즈	1,781	STS반도체	-621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도	
기계,장비	3,967	인터넷		-10,778	
계약	2,119	디지털컨텐츠		-5,063	
전문기술	1,645	반도체		-4,535	
에스에프에이	2,158	다음		-12,640	
SK컴즈	1,916	네오위즈게임즈		-4,671	
CJ E&M	1,912	덕산하이메탈		-2,777	
씨젠	1,353	실리콘웍스		-2,002	
씨앤케이인터	969	CJ오쇼핑		-1,865	
젬백스	945	컴투스		-1,507	
고영	741	스틸플라워		-1,382	
게임빌	538	하나투어		-1,206	
웹젠	357	크루셜텍		-793	
영남제분	335	인피니트헬스케어		-57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경방	14 일	아모레G	9 일
STX메탈	11 일	LG하우시스	9 일
조선내화	9 일	롯데쇼핑	7 일
GS건설	9 일	한진해운홀딩스	6 일
두산	7 일	동양메이저	6 일
울촌화학	7 일	SK케미칼	6 일
한국철강	7 일	한전기술	6 일
현대산업	6 일	S&T대우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이블씨엔씨	13 일	네패스	8 일
성광벤드	4 일	메가스터디	8 일
다음	4 일	에스에프에이	6 일
SBS콘텐츠허브	4 일	태웅	5 일
SK컴즈	4 일	우주일렉트로	5 일
하이록코리아	3 일	SDN	5 일
이오테크닉스	3 일	CJ E&M	5 일
평화정공	3 일	포스코 ICT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NHN	48,534	삼성전자	368,743
두산인프라코어	41,762	현대모비스	169,678
GS건설	36,184	현대차	169,535
대림산업	32,853	기아차	95,829
삼성생명	30,420	LG화학	63,867
GKL	27,034	호남석유	55,620
오리온	23,234	KB금융	54,159
하이닉스	22,998	하이닉스	48,689

KOSDAQ			
기	관	외	국 인
다음	40,629	에스에프에이	14,074
CJ E&M	19,161	CJ E&M	8,331
셀트리온	9,318	크루셜텍	4,062
SK컴즈	8,133	파라다이스	3,775
JCE	7,589	에스엠	3,607
게임빌	5,059	네오위즈	3,025
젬백스	4,730	메가스터디	2,854
네오위즈	4,401	씨앤케이인터	2,230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보험		14,670	11,000
제조업		64	304
의료정밀		-986	-99
삼성전자		6,984	16,635
삼성생명		9,867	11,974
롯데쇼핑		4,963	5,091
SK C&C		4,797	4,281
카프로		1,837	2,269
현대홈쇼핑		1,198	2,347
휴켄스		1,921	798
두산		2,205	273
현대하이스코		1,565	832
에스원		2,263	10

KOSDAQ			
종	목	기	관
전문기술		20,300	1,645
기계,장비		2,187	3,967
제약		559	2,119
CJ E&M		20,529	1,912
SK컴즈		5,879	1,916
JCE		4,905	239
에스에프에이		1,817	2,158
씨젠		1,393	1,353
AP시스템		1,847	29
웹젠		836	357
게임빌		267	538
고영		11	741
에림당		516	10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영전자	12 일	유한양행	19 일
대한제분	11 일	오리온	13 일
동부하이텍	9 일	신도리코	7 일
태광산업	9 일	한일이화	6 일
한솔테크닉스	9 일	동국제강	5 일
LG생명과학	9 일	송원산업	5 일
대덕전자	8 일	삼광유리	5 일
대한생명	8 일	빙그레	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메가스터디	10 일	셀트리온	8 일
유진기업	5 일	SK브로드밴드	6 일
아트라스BX	5 일	다음	6 일
에스엠	5 일	루멘스	6 일
우주일렉트로	5 일	하나투어	5 일
STS반도체	4 일	위메이드	5 일
서울반도체	4 일	이오테크닉스	4 일
OCI머티리얼즈	3 일	오스템임플란트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OCI	-149,280	GS건설	-40,620
삼성전자	-131,171	오리온	-32,758
현대모비스	-115,662	GKL	-31,483
기아차	-90,503	락앤락	-30,059
현대건설	-77,101	한국타이어	-27,750
우리금융	-48,479	KT	-24,278
제일모직	-45,778	신세계	-21,303
LG화학	-40,465	삼성카드	-21,192

KOSDAQ			
기	관	외	국 인
씨젠	-8,529	셀트리온	-34,276
에스엠	-8,480	다음	-32,026
메디포스트	-7,463	네오위즈게임즈	-12,285
나노신소재	-6,136	덕산하이메탈	-7,446
서울반도체	-5,914	멜파스	-5,827
OCI머티리얼즈	-5,489	3S	-5,285
STS반도체	-3,112	하나투어	-4,670
이스트소프트	-2,985	씨젠	-2,989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107,526	-48,464	-155,990
화학	-72,514	-22,584	-95,098
건설업	-26,451	-27,039	-53,490
LG화학	-35,640	-12,442	-48,082
현대건설	-32,246	-5,882	-38,128
현대모비스	-12,313	-25,624	-37,937
현대중공업	-20,433	-12,043	-32,476
한화케미칼	-24,510	-6,299	-30,810
우리금융	-29,476	-838	-30,313
대우조선해양	-23,152	-919	-24,071
S-Oil	-14,796	-3,072	-17,867
하이닉스	-2,499	-15,326	-17,825
제일모직	-13,971	-434	-14,404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1,496	-4,535	-6,031
소프트웨어	-2,651	-826	-3,477
IT부품	-1,034	-972	-2,006
메디포스트	-3,121	-25	-3,147
이스트소프트	-2,706	-17	-2,723
한글과컴퓨터	-1,855	-189	-2,043
STS반도체	-621	-3	-624
대주전자재료	-440	-114	-554
바이오특스텍	-189	-324	-513
파트론	-356	-67	-423
제이엔케이히터	-227	-132	-360
인터파크	-65	-286	-352
동아엘텍	-261	-81	-34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기아차	19	1,326
하이닉스	65	1,282
현대모비스	3	932
POSCO	2	717
SK이노베이션	4	661
현대차	3	635
삼성전자	1	486
한국타이어	8	32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서울반도체	5	130
OCI머티리얼즈	1	61
원익IPS	6	47
성우하이텍	2	31
주성엔지니어링	3	30
테크노세미켄	1	26
네패스	2	24
루멘스	3	19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POSCO	10,176	4,146,622
삼성전자	2,804	2,162,080
OCI	3,129	949,513
현대차	4,636	938,843
현대모비스	2,069	696,254
현대중공업	1,789	616,412
하이닉스	29,842	572,963
LG전자	7,783	505,09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8,372	385,131
서울반도체	6,243	167,941
덕산하이메탈	1,935	52,352
원익IPS	4,506	36,860
메가스터디	248	35,624
OCI머티리얼즈	250	23,963
테크노세미켄	520	21,740
태웅	524	20,671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순 증	순 감
금융업	4,260	운수장비	-2,802
증권	1,952	운수창고	-1,528
은행	1,812	건설업	-1,095
KB금융	1,835	대우건설	-1,027
외환은행	1,761	한진중공업	-954
우리금융	1,186	삼성중공업	-879
현대증권	981	LG전자	-824
두산인프라코어	920	STX조선해양	-576
신한지주	788	STX팬오션	-494
GKL	518	대우조선해양	-451
삼성증권	498	강원랜드	-405
한화	438	대한항공	-295
하나금융지주	366	대한전선	-29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순 증	순 감
인터넷	1,742	금속	-186
도매	367	기계, 장비	-91
섬유, 의류	294	전문기술	-73
이상네트웍스	1,768	엠비생산	-162
코데즈컴바인	263	에스엔유	-143
동진세미켄	213	셀트리온	-134
아가방컴퍼니	202	파트론	-105
코오롱아이넷	172	하림홀딩스	-94
파라다이스	165	서울반도체	-93
흠센타	139	케이디씨	-88
이지바이오	126	CJ E&M	-73
JW중외신약	118	태광	-70
엘오티베콤	107	아미노로지스	-43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29(월)	8/30(화)	8/31(수)	9/01(목)	9/02(금)
외국인	-4,405.2	1,013.8	1,316.0	-163.3	200.7	264.7	1,089.2	-75.3
기관계	2,376.6	-550.7	-495.6	319.8	-288.7	24.0	-267.4	-283.3
(투신)	-4,193.7	-216.4	-244.1	67.4	-110.9	15.7	-85.5	-130.9
(연기금)	6,254.5	-56.5	90.6	108.0	26.1	13.0	-31.3	-25.2
(은행)	-1,991.6	-14.6	-58.2	30.2	-78.1	4.3	-16.7	2.1
(보험)	-733.2	-71.5	-75.5	80.7	-80.3	-4.3	-49.4	-22.1
개인	3,870.7	-287.9	-810.9	-195.7	15.6	-342.9	-684.5	396.6
기타	-1,842.0	-175.2	-9.4	39.2	72.4	54.2	-137.3	-37.9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8/26(금)	8/29(월)	8/30(화)	8/31(수)	9/01(목)
KOSPI	1,124.47	1,682.77	2,051.00	1,778.95	1,829.50	1,843.82	1,880.11	1,880.70
고객예탁금	9336.3	12072.0	14068.5	19181.1	19476.9	19532.0	19338.9	19378.5
(증감액)	-746.3	-714.3	-228.9	-645.6	295.8	55.1	-193.1	39.6
(회전율)	46.9	52.6	51.5	35.4	43.5	45.9	45.6	58.6
실질예탁금 증감	-624.7	-551.4	-655.2	-361.3	264.5	-25.6	-342.9	58.8
신용잔고	1502.0	4359.5	5938.3	4855.7	4816.1	4814.4	4824.8	4812.1
미수금	145.1	240.2	192.3	201.3	213.0	165.5	126.0	158.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8/26(금)	8/29(월)	8/30(화)	8/31(수)	9/01(목)
전체 주식형	102,808	-2,404	-10	106	17	63	-10	-10
(ex. ETF)		-4,837	-58	102	36	53	27	-58
국내 주식형	70,098	3,483	1	132	60	93	17	1
(ex. ETF)		1,039	-47	127	79	80	54	-47
해외 주식형	32,709	-5,887	-11	-25	-43	-30	-27	-11
(ex. ETF)		-5,877	-11	-25	-43	-28	-27	-11
주식 혼합형	12,451	540	22	-4	-1	1	8	22
채권 혼합형	19,570	129	-27	11	13	151	41	-27
채권형	47,345	-5,898	17	-180	-27	7	-60	17
MMF	55,055	-12,996	-254	101	-118	-1,237	-1,889	-25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29(월)	8/30(화)	8/31(수)	9/01(목)	9/02(금)
한 국	-899	-2,020	1,235	-152	-	249	1,027	-75
대 만	2,176	-79	452	255	-133	213	375	-258
인 도	-628	-1,544	106	106	-	-	-	-
인도네시아	1,781	151	0	-	-	-	-	-
태국	872	-100	129	-61	15	25	150	-
남아공	1,041	297	247	-57	-108	180	232	-
필리핀	534	215	5	-	-	-5	9	1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0년	8/26(금)	8/29(월)	8/30(화)	8/31(수)	9/01(목)	9/02(금)
회사채 (AA-)	4.27	4.21	4.24	4.22	4.23	4.20	4.20
회사채 (BBB-)	10.26	10.18	10.21	10.18	10.19	10.15	10.15
국고채 (3년)	3.38	3.48	3.51	3.48	3.49	3.45	3.44
국고채 (5년)	4.08	3.63	3.66	3.61	3.62	3.58	3.57
국고채 (10년)	4.52	3.87	3.88	3.84	3.86	3.81	3.79
미 국채 (10년)	3.36	2.19	2.26	2.18	2.22	2.13	-
일 국채 (10년)	1.13	1.04	1.02	1.02	1.03	1.05	-
원/달러	1,134.80	1,081.80	1,074.00	1,071.60	1,066.80	1,061.25	1,063.00
원/엔	1,392.56	1,407.00	1,397.00	1,397.00	1,391.00	1,377.00	1,385.00
엔/달러	81.49	76.91	76.90	76.71	76.74	77.11	76.78
달러/유로	1.33	1.43	1.45	1.44	1.44	1.42	1.42
DDR3 1Gb (1333MHz)	1.09	0.67	0.65	0.64	0.63	0.63	-
NAND Flash 16Gb (MLC)	4.84	2.69	2.93	2.88	2.85	2.84	-
CRB 지수	327.11	335.25	337.12	340.95	342.57	340.65	-
LME 지수	4,164.25	3,938.4	-	3,991.1	4,043.7	3,990.8	-
BDI	1,773	1,541	-	1,537	1,619	1,682	-
유가 (WTI, 달러/배럴)	89.84	85.37	87.27	88.90	88.81	88.93	-
금 (달러/온스)	1,405.90	1,795.10	1,789.30	1,827.50	1,829.30	1,826.7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109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8월 29일	235.78	235.40	0.23	-0.38	-0.44	401,219	129,112	-493
8월 30일	237.64	237.55	0.21	-0.09	-0.39	338,029	126,988	-2,124
8월 31일	242.16	241.50	0.19	-0.66	-0.31	322,529	127,290	302
9월 1일	242.37	242.50	0.17	0.13	-0.29	476,303	125,958	-1,332
9월 2일	240.16	239.15	0.17	-1.01	-0.65	451,936	120,896	-5,062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8월 29일	725	-2,191	384	-818	404	12	95	-5
8월 30일	552	907	357	785	-1,164	82	788	-50
8월 31일	858	-1,511	1,162	1,043	193	-189	55	5
9월 1일	169	2,370	-3,065	-609	-2,506	-339	494	50
9월 2일	-2,162	-1,263	3,383	1,862	647	88	740	-50
누적포지션	13,156	-6,972	-9,224	-5,805	5,614	28	-9,232	-374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8월 29일	998	738	-261	628	540	-88	371	197	-173	10,895	7,248
8월 30일	906	707	-199	701	518	-184	204	189	-15	10,898	7,245
8월 31일	742	1,089	348	614	901	288	128	188	60	10,862	7,263
9월 1일	1,243	1,805	562	841	1,466	625	402	339	-63	10,891	7,226
9월 2일	782	591	-191	527	496	-31	255	94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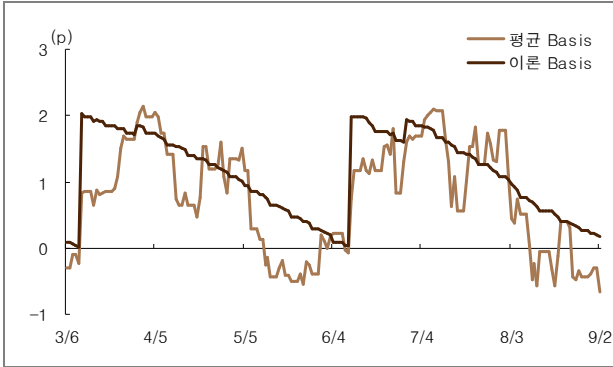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 / 가격(P))

변동성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29.41	8,323	1,139,045	0.23	255.00	15.80	2,497	-468	44.78
27.39	31,312	1,224,755	0.31	252.50	13.40	1,222	-114	41.05
27.70	19,962	1,719,715	0.58	250.00	11.40	6,940	-532	41.26
29.32	21,874	1,282,035	1.13	247.50	9.05	13,151	-826	36.74
28.49	5,268	1,110,937	1.67	245.00	7.35	86,447	-12,864	37.30
28.53	2,664	562,184	2.53	242.50	5.90	137,493	-4,600	38.24
29.72	6,460	175,022	3.80	240.00	4.10	246,001	-99	34.60
28.87	1,699	58,282	5.10	237.50	3.35	478,398	-3,792	37.79
30.60	3,927	26,493	6.95	235.00	2.50	1,277,765	7,871	38.52
26.49	-254	4,079	8.50	232.50	1.92	1,168,483	7,759	40.17
17.82	568	4,159	10.35	230.00	1.32	1,424,208	-3,045	4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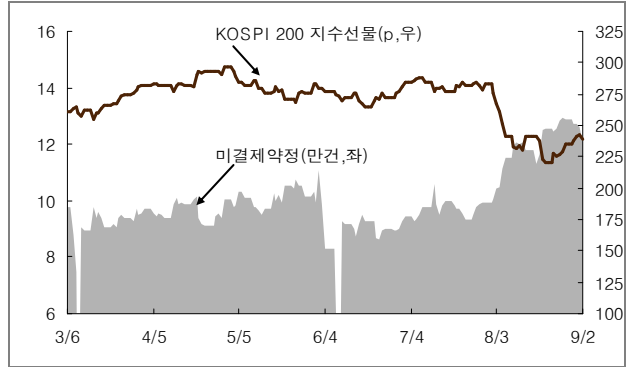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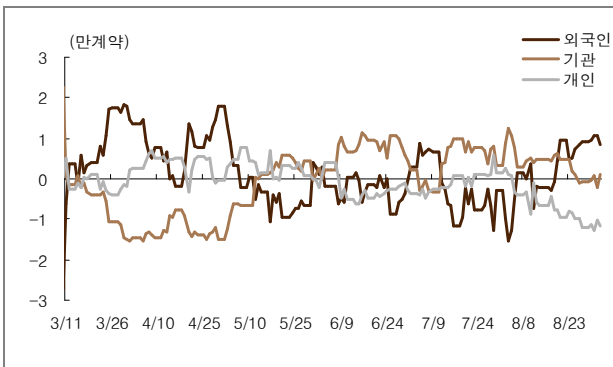
- 평균 Basis: -0.65 (전 거래일 대비 0.36 하락)
- 이론 Basis: 0.17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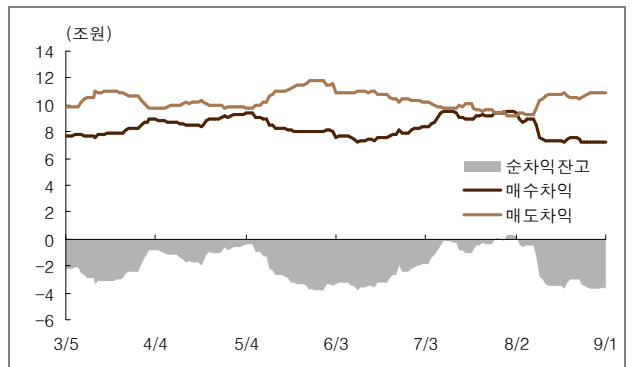
- 미결제 약정수량: 전 거래일 대비 5,062 계약 감소한 120,896 계약
- 선물가격(239.15): 전 거래일 대비 3.3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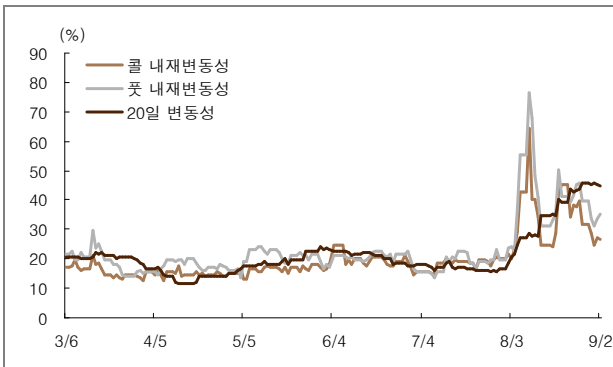
- 외국인: 2,162 계약 순매도
- 기관: 3,383 계약 순매수 / 개인: 1,263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1,608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306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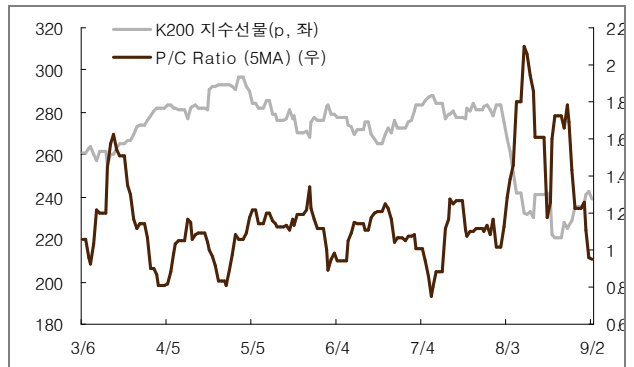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26.5% / 풋 35.1%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44.70%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1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5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9	30	31	1	2
美> 7월 미결주택매매 MoM (-1.3%, -1.0%, 2.4%) 7월 개인소득 MoM (0.3%, 0.3%, 0.1%) 7월 개인소비지수 (0.8%, 0.5%, -0.2%) 실적발표> 韓 롯데제과 韓> 9월 기업BSI-제조업 (86, n/a, 91) 9월 기업BSI-비제조업 (83, n/a, 83) 美> 6월 S&P/CS 20개 도시 MoM SA (-0.06%, 0.00%, -0.05%) 8월 소비자기대지수 (44.5, 52.0, 59.5) 유럽> 8월 유로권 소비자기대지수 (-16.5, -16.6, -16.6) 8월 유로권 경제기대지수 (98.3, 100.2, 103.2) 8월 유로권 산업기대지수 (-2.9, -2.0, 1.1) 中> 7월 선행지수 (102.25, n/a, 101.76) 日> 7월 실업률 (4.7%, 4.6%, 4.6%)	韓> 9월 기업BSI-제조업 (86, n/a, 91) 9월 기업BSI-비제조업 (83, n/a, 83) 美> 6월 S&P/CS 20개 도시 MoM SA (-0.06%, 0.00%, -0.05%) 8월 소비자기대지수 (44.5, 52.0, 59.5) 유럽> 8월 유로권 소비자기대지수 (-16.5, -16.6, -16.6) 8월 유로권 경제기대지수 (98.3, 100.2, 103.2) 8월 유로권 산업기대지수 (-2.9, -2.0, 1.1) 中> 7월 선행지수 (102.25, n/a, 101.76) 日> 7월 실업률 (4.7%, 4.6%, 4.6%)	韓> 7월 산업생산 YoY (3.8%, 6.2%, 6.4%) 7월 경기종합선행지수 YoY (2.0%, n/a, 1.7%)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9.6%, n/a, -2.4%) 8월 ADP취업자 변동 (9.1만, 10.0만, 11.4만) 7월 제조업수주 MoM SA (2.4%, 2.0%, -0.8%) 日> 7월 산업생산 YoY (-2.8%, -1.9%, -1.7%) 7월 자동차생산 YoY (-8.9%, n/a, -13.9%) 7월 건설수주 YoY (5.7%, n/a, 6.0%) 7월 주택착공건수 YoY (21.2%, 4.9%, 5.8%)	韓>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5.3%, 4.8%, 4.7%) 8월 대외무역-수출 YoY (27.1%, 25.0%, 27.3%) 8월 대외무역-수입 YoY (29.2%, 24.5%, 24.8%)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0.9만, 41.0만, 41.7만) 8월 ISM 제조업지수 (50.6, 48.5, 50.9) 유럽> 8월 PMI-제조업 (49.0, 49.7, 49.7) 中> 8월 PMI-제조업 (50.9, 51.0, 50.7) 日> 8월 자동차판매 YoY (-25.5%, n/a, -27.6%)	美> 8월 실업률 (9.1%, 9.1%, 9.1%) 8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0만, 6.8만, 11.7만) 日> 8월 통화공급-본원통화 YoY (15.9%, 1, 15.0%)
5	6	7	8	9
유럽> 8월 PMI-서비스 (n/a, 51.5, 51.5) 9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 (n/a, -18.0, -13.5) 中> 8월 PMI-비제조업 (n/a, n/a, 59.6)	韓> 2Q 실질 GDP YoY (n/a, n/a, 3.4%) 美> 8월 ISM 비제조업지수 (n/a, 51.2, 52.7)	韓> 8월 은행가계대출 (n/a, n/a, 445.5조)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9.6%) 日> BOJ 금리결정 (n/a, n/a, 0.10%)	韓>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 (n/a, 3.25%, 3.25%)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40.9만) 7월 무역수지 (n/a, \$-50.0B, \$-53.1B) 유럽> ECB 금리공시 (n/a, 1.50%, 1.50%) BOE 금리공시 (n/a, 0.50%, 0.50%) 日> 7월 기계수주 YoY (n/a, 9.1%, 17.9%)	韓> 8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n/a, 6.5%) 美> 7월 소비자신용지수 (n/a, \$6.0B, \$15.5B) 中>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6.1%, 6.5%) 8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7.2%, 7.5%) 8월 산업생산 YoY (n/a, 13.8%, 14.0%) 8월 소매판매 YoY (n/a, n/a, n/a) 8월 실질FDI YoY (미확정) (n/a, n/a, 19.8%) 8월 신규위안대출 (미확정) (n/a, 500.0B, 492.6B) 8월 통화공급 M2 YoY (n/a, 14.0%, 14.7%) 日> 2Q 연간화 GDP (n/a, n/a, -1.3%) 8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37.0)
12	13	14	15	16
日> 8월 기업물가지수 MoM 8월 공업기계수주 YoY (미확정)	美> 8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8월 수입물가지수 YoY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8월 생산자물가지수YoY 8월 소매판매액지수 日> 7월 산업생산 YoY	美>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 산업생산 9월 플라네티아 연준지수 유럽> 8월 유로권 CPI YoY	韓> 8월 수출물가지수 YoY 8월 수입물가지수 YoY (9/17) 8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9/17) 8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美> 9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KIS Research, Bloomberg 기준으로 작성

